

... 학교경영계획서 ...

소 속	00초등학교	직 위	교사	성 명	0 0 0
-----	--------	-----	----	-----	-------

I 학교 교육목표

1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



📖 '행복한 학교' -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곳

계수초등학교의 비전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2009년 계수초의 구성원들이 모여 이러한 비전을 만들면서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새기며 문장을 만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우리는 먼저 교육의 목적이 '행복'일 수 있는가에 대해 긴 토론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거나 주관적인 것은 아닐까. 교육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상심, 괴로움이나 인내를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포괄할 수 있을까. 각자가 느끼는 행복이 다른 것일 텐데, 자칫 개별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랜 토론 끝에, 행복한 삶은 누구나 꿈꾸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가 꾸려나가는 행복 또한 무척

의미 있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물론 구성원 각자의 행복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가치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어떤 것들을 상정해야 할까요? 그것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과 연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는 협력을 통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움’은 표현과 공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직하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세상과 관계되는 소통으로서의 ‘나눔’,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 협력을 통한 좋은 공동체 만들기

학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행복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등 교육의 기간에 타인과 함께하며 기쁨을 느끼고 성장하는 체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남을 딛고 올라서는 경쟁은 행복한 것일 수 없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협업의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협력의 과정을 통해 동료성이 구축되고, 이는 집단지성으로 발휘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의 실천력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해내었을 때의 성취감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으로 발현될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각자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 함께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장소를 가지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내 자리가 없을 때 필연적으로 ‘소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향이 견고해졌을 때는 혹시 생길 수 있는 소외의 인자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성원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널리 살펴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세심한 배려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서 앞으로 굴러가야 할 바퀴와 같습니다. 그 사이를 조율하는 것 또한 좋은 공동체의 힘이며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 – 표현과 공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직하기

계수초에서 작은 학교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논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학교라는 공간이 즐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이 때문에 학습을 피해 가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수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의 토론을 통해 ‘학습’이나 ‘공부’를 벗어나 ‘배움’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공부란 지식이나 기능을 성취해서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일괄적인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시험’이라는 규정과 통제 장치를 통해 파악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들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경쟁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할 때 더 잘 이루어집니다.

요컨대 ‘배움’은 ‘함께’ ‘나눔’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함께 배우는 호혜적인 배움, 그리고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친구와 나누었을 때 지식이나 기능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력’의 의미 역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의 학력은 ‘학습의 결과 테스트로 측정되는 것’ 또는 ‘학습 능력’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배움’으로 전환된다면 ‘학력’ 또한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에는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예술적 감수성,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태도,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마음가짐까지 포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눔’ - 세상과 관계 맺는 소통

나눔은 말 그대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누 수 있고, 나누고 난 뒤에는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로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 맺기입니다. 나눔은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에 나누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하는 것 자체가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치 지향이 아니라 나누면서 쌓아온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눔’ 주제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의 비전을 진행시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작은 세상입니다. 학교라는 사회는 비록 작은 단위이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학교는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각자 세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나눔을 통한 관계 맺기, 소통과 배려, 존중의 문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수초등학교의 비전과 목표



* 저는 2011년도 계수초등학교 혁신학교 운영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계수초등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민주적 참여와 소통 만들기

계수초등학교의 비전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입니다. 비전이란 이루어진 결과로의 의미보다는 과정으로서의 잣대가 되고 교육 실천을 돌아보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계수초등학교는 이미 ‘다모임’이라는 민주적 자치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그 협의의 구조 안에서 구성원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학교’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일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사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 다모임 등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회의 구조를 통해 구성원의 민주적 자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대토론회는 학교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로, 각 협의체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어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학생 자치를 확장하여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가. 삶과 배움이 어우러지는 생활 민주주의 실현

- 계수교육헌장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 살피기
- 학교 비전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함께 점검하기
- 학교 비전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을 세우기 위한 구성원 워크숍 실시
- 학교생활과 수업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 생활지도 원칙 함께 만들고 점검하기(다모임, 학급회의를 통한 생활 규범 만들기)
-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대화 분위기 만들기

나. 민주적인 속의 구조를 통한 민주적 자치역량 키우기

- 교사회 · 교직원회의 의결기구화
- 교사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 다모임 등의 각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 학교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대토론회 운영
- 교육과정 기획 · 운영 · 평가 중심의 교사회, 교직원회
- 교육과정 실행과 평가의 동시 운영을 통한 협력적 성찰과 효율적 회의 운영
- 대의제가 아닌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다모임 운영
-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 실시

다.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학생 주도의 학생 다모임 활성화와 지원>

- 다모임의 회의 규칙 세우기와 방향 정하기
-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학생회 구성
- 교육과정 내 학생 다모임 정기적 운영(월 2회)
- 학교 행사 기획 준비 실행 예산 등 준비 과정에서 적극 지원
- 학생 기획 활동 시간 교육과정 내 확보(연 6시간)
- 소위원회, 분임회의, 학년군별 소그룹 회의 등 회의 구조의 다양화
- 다모임 게시판을 통한 토의 주제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의견 게시를 위한 공간 마련
- 학생 자치 회의실 확보 및 공간 꾸미기 TF팀 구성
- 학급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학급 다모임 운영의 활성화(교육과정 내 시간 확보)
- 자발적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예산, 공간)

라. 공동체 구성원의 학교 참여 활성화

- 학부모 회의 정례화(월 1회)
- 학부모 참여를 이끄는 교육과정 설명회, 교육과정 반성회 및 대토론회 개최
-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계수아카데미 운영(독서토론, 강연 등)
- 학부모회 기획 행사 적극 지원(예산, 공간, 홍보, 참여)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학부모 의견 수렴
- 교육활동 모니터링 의견 수렴 및 교육과정 반영
- 학부모 교육 재능 기부 활성화 및 교육활동 자원봉사 운영(문화예술수업, 체험학습 보조 교사 등)
- 학급별 학부모 다모임 실시(연 2회 이상)
- 학부모 동아리 운영 지원(예산, 공간, 홍보)

1 나눔을 통한 존중과 배려의 생활 공동체 만들기

학교는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중요한 이유는 배움 못지않게 관계 형성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 또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면서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지향하는 철학이 공고해질수록 개인의 자율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구성원을 인정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원리는 문화로 스며드는 것이어야지 규율로 통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맞닥뜨렸을 때 공동체의 원리가 실재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짚어내는 냉철한 이성뿐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구성원을 환대하고 존중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이 함께 생활지도 원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일상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눔데이, ‘나눔’주제중심 교육과정 등을 통해 선후배 간에 나눔으로 배우고 소통하는 학생 중심의 수업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가.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만들기

☘ 학생

- 존중의 아침 맞이, 학급 아침 인사
- 안전한 학교(3무: 욕설, 폭력, 수업 방해 없는 학교) 만들기
- ‘놀이와 장난, 괴롭힘’, ‘수업 방해, 수업 활력’ 경계 세우기
- 평화로운 학급·학교 만들기 운영
- 씬과 놀이가 있는 돌봄
- 학생과 교사가 전담 교실로 함께 이동하기
- 구성원 모두가 환대하는 신입생 입학식 운영

☘ 교직원

- 전입 교직원의 적응을 돕고 철학을 공유하는 워크숍 실시
- 구성원 모두가 환대하는 전입 교사 환영의 자리 만들기
-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적극 대응
- 교직원과 정기적 간담회 운영

학부모

- 학부모를 환대하는 참여와 소통의 시간 나누기(학부모 상담, 학기별 교육과정 위원회)
- 학부모 자치회실 시설, 환경 예산 지원
- 학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 아이 네 아이 가르치 않는 학부모 문화 만들기

나. 생활지도 지원 체계 만들기

-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다차원적 공동 연계 협력(가정방문, 전문적 상담 및 정서적 치료, 학습지원)
- 생활지도 원칙(내용, 절차)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기
- 생활교육 워크숍 실시(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 대화)
- 교사 생활지도 지원 체계 만들기(학생 상담 - 학부모 상담 - 학부모, 학생, 담임, 교감, 교장 상담)
-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생활교육 토대 만들기(학생: 평화놀이, 학부모: PET, 교사: TET, NVC 지원)

다. 나눔으로 소통하는 문화 만들기

- 학년군 회복적 서클을 통한 정서적 교감 및 안정감 갖기
- 통합학년 나눔데이 운영(월 1회, 재능나눔)
- 공간을 통한 추억 나눔(선후배가 연결되는 공간 만들기)
-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소통과 나눔을 높이는 학부모회 활동 지원
- 학교 텃밭을 통한 김장 나눔
- 교장실을 소통의 공간, 사랑방으로 개방
- ‘나눔’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통한 나눔 실천하기(나눔시장, 재능나눔, 학년별 재능기부, 학부모 동아리 재능기부)
- ‘나눔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부, 공동 행동과 연대 고리 만들기
- ‘나눔놀이’ 문화 만들기(무학년 공동체 놀이의 개발)

라. 학생 중심의 수업 문화 만들기

- 한 명의 아이가 하나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만들기
- 학생 이해를 바탕으로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주는 수업 구상하기
- 학생 중심의 수업 대화 모색

1 배움으로 성장하는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실천

계수 교육활동의 실질적 동력은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에서 나옵니다. 협업의 과정은 동료성을 만들고 공동 실천과 성찰로 이어집니다. 계수초등학교는 학년 총괄의 책임이 담임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도 하지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주제중심 활동안을 만들고 실현하는 책임 역시 전적으로 개별 교사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 또한 큼니다. 계수초등학교는 공동체성과 동료성에 기반한 협업의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은 학년 학급의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계수초의 창의적 교육과정의 역량은 또한 학부모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문학 독서 모임을 통해 좋은 공동체를 위한 철학을 다지고 공동체 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문학 모임을 학교와 지역 바깥으로 확장하여 계수초의 연대 고리를 만드는 것 또한 계수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계수의 빛깔로 실천되어온 협력의 과정과 교육과정을 기록하고 이력화하여 확장의 발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인문학 모임을 통해 교육 상상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교육과정 협업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천의 과정을 기록하여 확장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연수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가. 인문학 모임을 통한 교육 상상력 확대

-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문학 독서 모임(작가 초청 지원)
- 학부모 · 교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실시(저자, 시민단체, 건축가 등 전문가 초청)
- 인문학 모임을 통한 학교 혁신 역량의 질과 폭 넓히기(지역 내외 연대)
- 지역의 교과 연구회, 혁신학교 네트워크 등과 정보 교류

나. 교육과정 협업의 문화 만들기

- ‘배움’ ‘수업’ ‘학력’에 대한 철학 다지기
- 공동수업안 짜기, 공동 실천을 통한 성찰, 협업의 문화 만들기
- 통합학년 공동 교육과정 만들기
- 학년군 통합 교육과정 공유의 시간 갖기

- 아이의 눈으로 수업을 보고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성찰하기
- 사전협의를 통한 공동수업안을 도출하여 상호부조와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료 장학
- 학교 안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육과정 공동 실천을 통한 책무성 강화
- 교육과정 반성회를 통한 학교 활동 성찰(연 2회)
- 교육과정 워크숍(연 2회)을 통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교육과정 워크숍은 학년을 시작하기 전인 2월에 전 교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집니다. 교사가 주제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열개를 작성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협의를 합니다. 다른 학년의 교육과정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지와 공동 실천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연대로 이루어집니다. 온작품 및 현장체험학습 등 활동의 중복 여부를 파악하고, 학년 통합의 연계 고리를 찾고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살핍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 담임을 통해 아이들의 특성이 최대한 고려되도록 하며 각자 교사의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 활동안이 구체화 됩니다. 이러한 워크숍의 과정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역량을 키우고 책임을 공유하며 교육과정을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름방학에는 2학기 교육과정 수립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 계수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공유의 날 갖기(3월 중, 교직원, 학부모)

다. 자율적 연구 활동과 연수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 교사 자율 연수 지원, 교사들이 필요한 연수 기획
- 교직원, 학부모,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지원
- 온라인 수업 지원 체제 구축과 연수 지원
- 필요와 요구에 따른 학부모·교사 연수 지원(학부모: PET, 교사: TET, NVC 지원)
- 학교 안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 역량 키우기
- 학생중심 공간 연수를 통한 공간 인식 제고
- 교사 도서 및 전문서 지원

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책무성

- 기초학력 위기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기초진단-학생·학부모 상담)
- 한글 해득 교육과정에 충분한 시수 확충과 적절한 교재 제공
- 1학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학습, 정서 상태 조사) 실시(지원예산 확보)
- 기초 문해력, 연산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학습 향상 프로그램 상시 운영
- 기초 연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적절한 교재 활용

1 삶의 역량을 키우는 창의적 교육과정의 운영

계수 교육활동의 핵심은 주제중심 교육과정, 다모임, 문화예술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면 과부하와 힘의 분산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핵심 교육활동은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축으로 유기적으로 짜여야 하며, 학교 전반에 걸쳐 펼쳐질 것들을 최대화하여 창의적 교육과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수초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의 원리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합의하여 맞추고, 내용과 방법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전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에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수업의 시스템과 내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나 환경 문제 등에 있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시민으로서 대처하고 공동 행동을 만드는 것 또한 주제학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심적 계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주제중심 교육과정, 다모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의 학교 활동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성원의 협업과 교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다양한 빛깔의 배움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기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 삶과 연결되는 주제중심 교육과정

-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운영(학년별 2주제 이상, 학년 공통주제 ‘의식주, 나눔’)
- 교육과정 재구성, 온작품·텃밭 생태교육 연계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예산 지원
- 학년 간, 학년군 통합교육과정 운영
- 무학년제 통합교육과정(나눔 주제중심 교육과정)
- 예술교육 강화(교사와 학생의 요구 반영, 학년 연계에 따른 커리큘럼 짜기. 예) 오카리나-리코더-소금)

-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험학습
- 소인수 학급의 협력학습 모형 개발(팀티칭, 프로젝트, 협동학습 등)
- 인문교육 강화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프로젝트 활동으로 연계(기후 위기 등 사회적 시민 행동 참여)
- 모두가 행복한 성인지 교육

나. 학생 기획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의 운영

- 학년 교육과정에 학생 의견 적극 반영
- 소위원회를 통한 학생 기획 활동 운영(야영, 체험활동, 운동회, 졸업식, 나눔시장)
- 학생 기획 체험활동 실시(6학년 졸업여행, 5학년 역사기행, 각 학년 주제 학습에 맞는 여행)
- 4·5·6학년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떠나는 여행프로젝트(학생 다모임 연계)
- 학생 기획 체험활동 지원(예산, 업무, 안전 사항, 보조교사)
- 학생의 학습 기획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의 운영(교육과정 설계에 학생의 참여)
- 교육과정 내 다모임 시간, 학생 기획활동 시간 확보
- 학교 공간 재구조화(다모임과 연계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
- 놀이 문화 만들기 (무학년 공동체 놀이의 개발, '나눔' 교육과정과 연계 실시)

다. 창의적 교육과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 만들기

- 교사별 교육과정에 대한 적극적 인정과 예산 지원
-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에 상호 협력의 문화 만들기
-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공유와 실천
-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 교사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올바른 참여 문화(참여와 간섭의 경계 세우기)
- 자율학교에 주어진 교육과정 재량을 활용하여 중심적 계수 교육과정 시간 확보(교과 시수 감축 등 구성원과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간 정하기)
- 학교장의 수업 지원 (보결 수업, 현장체험학습 인솔, 주제 수업에 팀티칭 지원, 통합교과 수업 전담 등)
- 창의적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덜어내는 작업하기
- 학부모 동아리 중심의 여름 겨울 계절독서캠프 활동 적극 지원

라. 온작품 수업 활성화

- 온작품과 주제중심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결

온작품 수업은 주제중심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의 주제를 먼저 선정하여 주제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온작품 텍스트를 정할 수도 있고, 온작품 텍스트를 먼저 정하여 주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온작품 텍스트를 고르는 것이 주제중심 교육과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온작품 텍스트를 충분히 잘 읽기 위해 읽기·글쓰기·토론활동이 유기적으로 짜여집니다. 텍스트를 읽는 과정이나 읽은 후 표현활동(연극, 음악, 미술 등), 프로젝트 활동, 작가와의 만남, 현장체험학습 등을 엮습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은 주제를 깊이 있게 느끼고 체험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력적 기획능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이들은 배우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과 자신의 생각을 '배움공책'에 정리합니다. '배움공책'은 주제중심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의 성장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제가 끝나면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온작품 수업을 지원하는 도서관 운영(학년별 온작품 관련 도서 배치와 목록 만들기)
- 온작품 수업에서 읽기·글쓰기·토론 교육의 핵심 연계
- 온작품 수업과 연계된 '작가와의 만남' 예산과 업무 지원
- 온작품 수업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다모임을 통한 안내와 공유
- 학년별 온작품 목록 정리하여 이력화 하기
- 온작품 텍스트 영역의 확장(영상, 미술, 음악 등)
- 온작품 구입 예산 확보

마. 배움과 생각의 역량 키우기

- 새로운 배움에 도전할 수 있는 자존감 키우기(배움에 대한 단계별 성공 경험 쌓아가기, 아이별 개별 목표 정하기)
- 다양한 빛깔의 배움을 창출하는 수업 방식 만들기(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수업, 팀티칭, 직접교수법,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하브루타 질문 수업)
- 하루의 배움과 관계를 정리하는 배움공책 만들기
- 배움공책을 활용하여 꾸준히 글쓰기, 생각의 성장 과정 확인하기
- 배움공책을 엮어 학급문집 만들기(학급문집 제작 지원)
- 주제별 학기별 자기평가를 통한 자신의 배움 역량 돌아보기
- 배움공책을 통해 하루의 관계와 배움을 정리하고 성찰하기
- 학교 잘 보이는 공간에 전 학년 글쓰기 공유하고 나눔 활동하기
- 교내 인사이트 투어를 통한 익숙한 공간 낯설게 보기
- 다모임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토의·토론 활성화
- 학생의 특징과 배움의 장면에 맞는 평가 방법의 다양화, 다면적 평가
- 독서, 글쓰기, 토론의 유기적 연결

바.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 ‘예술적 감수성’과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의미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과 공감대 만들기
- 창체(동아리) 50차시, 25주 이상 확보하여 교육과정 시간으로 운영
- 혁신 예산과 학교 자체 예산을 배정하여 운영
-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의 학년 연계와 지속성을 고려하여 운영
- 전문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강사 지원과 교사와의 유기적인 협업 마련
-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 1~3학년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수업은 공연과 발표에 목표를 두지 않고 아이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발표회 대신 학부모 협력 수업 또는 공개수업으로 대체)
- 4~6학년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발표회 날을 학교 축제로 운영(가요제, 학생회 기획행사 운영)

사.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과 지원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지원
- 온라인 수업 연수 예산 지원
-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보 기자재 마련
- 주제중심 교육과정, 온작품 수업 중심의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과 내용 만들기
-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실시

계수초등학교는 6학급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적은 인원이 전체 업무를 나누고 해결해야 하니 업무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큼니다. 학급 담임은 학년 총괄의 책임을 져야 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3~4명이 나누어서 하는 학년 업무까지 혼자 처리합니다.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경감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무와 교육활동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과감한 업무 통합과 축소 및 폐지**를 통해 업무 경감을 이루겠습니다. 가능한 여건 내에서 행정업무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장이 수업과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과 놀이와 쉼이 어우러지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의 철학을 구현하는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구성원의 합의 속에서 교육 활동과 방역의 균형을 찾고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학교 경영 지원

가.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의 경감 노력

- 학생, 현장중심의 교육활동 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와 교육활동에 대한 원칙 세우기
- 1년 동안의 부서별 행정업무를 검토하여 과감한 업무 통합, 축소, 폐지하기
- 실질적인 권한위임 확대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자율성과 책무성 높이기
- 행정업무 지원 전담팀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하기
- 학교 내 직종 간 민주적인 업무 조정을 위한 교직원 업무 협의 실시(1차-12월, 2차-3월)
- 교장과 교감의 적극적인 수업과 업무 지원

나. 학생들의 배움과 놀이와 쉼이 어우러지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 학생 중심으로의 공간 개선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TF팀 운영하기(공간, 내용, 방법, 예산 지원 등)
-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 학생·학부모 다모임과 연계된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활성화
- 학생 자치회실 설치하기
-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 학습장 조성하기(시청 공원과와 협의)
- 온작품 수업을 지원하는 도서관 재구조화(도서관 이전 또는 확충을 위한 협의 실시)

다. 예산 편성 합리화와 효율적 운영

- 철저한 예·결산 검토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합리적 예산 운용 방안 찾기
- 교사들의 창의적·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적극 지원하기(학급 운영비 확대)
- 학교 시설, 환경에 대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낭비 예산 찾아내기
-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고루 반영된 균형 예산 운영
- 투명한 업무추진비 운영으로 청렴한 학교 문화 다지기

라. 안전한 학교 구축

- 계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계수현장 실천하기
- 학교 시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구성원 모니터링으로 위험 요소 찾아 해결하기
- 코로나19에 대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 매뉴얼 만들어 실천하기
- 교직원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과 방역의 균형 찾기
- 방역 예산 확대하기
-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 실천하기(내용, 방법, 예산 지원의 적극적 실천)
- 학생들의 놀이 공간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교직원들의 휴게 공간 확보
- 학부모 자치회실 환경 개선 실시

VII

지속 가능한 계수초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한 4개년 발전 계획

지금까지 다져온 계수초등학교의 비전과 문화를 디딤돌 삼아 혁신학교로서의 성장과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혁신교육의 추진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계수초의 혁신 모델을 일반화하면서 인근의 초·중학교로 혁신교육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구 분	추진 경로	추진 과제
디딤돌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철학 및 과제 공유 • 혁신주체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환대와 인정(신입생, 전입교사의 학교 문화 적응 돕기) • 계수교육현장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 살피기 • 생활지도 지원 체계 만들기 • 자율학교에 주어진 교육과정 재량을 활용하여 중심적 계수 교육과정 시간 확보 •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에 공동체 협력과 공유의 문화 만들기 • 교사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 다모임 등의 각 협의체를 통한 의견 수렴 •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과 지원 •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통한 '배움' '수업' '학력'에 대한 철학 다지기 •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 학생, 학부모 다모임과 연계된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활성화 • 학생,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문화 조성을 위해 업무와 교육활동에 대한 원칙 세우기
재도약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과제 및 영역 확장 (학교 자치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육과정 공동 실천을 통한 책무성 강화 • 학부모 교사가 함께 배움과 성장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내실화 • 주제중심 교육과정과 협력의 과정을 기록하고 이력화하여 확장의 발판 만들기 • 학생 주도의 학생 다모임 활성화와 지원 •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의 철학을 구현하는 학교 공간 만들기 • 계수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공유의 날 운영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노력과 책무성 강화 • 인문학 모임을 고리로 학교와 지역을 넘어 계수 혁신 역량을 공유하고 질과 폭 넓히기
지속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학교 자치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명의 아이가 하나의 교육과정이 되도록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만들기 •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확대 • 민주적 학교 자치에 대한 구성원의 실천 역량 강화(교육, 연수, 워크숍) • 계수초 학교 자치의 성장 모델 만들기 • 혁신학교 재지정
확장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활동 평가 및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성과 일반화 • 생활 민주주의의 실현 • 학교 공간 재구조화 심화(다모임과 연계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 • 혁신학교 네트워크 구축과 선도 • 계수초 자치 모델 확장(초·중학교 연계 방안 모색)